

지역 소식 통

정읍시, '빈집정비사업' 처리비용 지원 본격 추진

정읍시가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장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 을 본격 추진한다. 빈집정비사업은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억 3700만원으로 총 39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가구당 최대 400만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하며 초과비용은 빈집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빈집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은 3월 27일까지이며 이후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이 결정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후보자 군민검증 실시

부안군은 2025년 부안군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앞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군민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안군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군민의 명예를 높이고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군민을 발굴해 그 공적이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3주 동안 4개 분야(산업, 공익, 문화, 애헌) 7명이 부안군민대상 후보자 접수를 마쳤다. 군민검증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후보자의 주요 공적을 공개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와 부안군청 자치행정담당관(☎ 580-4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민대상은 현지조사와 군민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안군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군민대상 수여일은 제12회 부안마실축제 개막식날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대표단, 독일 뮐하우젠 방문

두 도시간의 연대 · 협력 방안 논의... 세계 혁명도시 연대 강화

이학수 시장과 박일 시의장을 비롯한 정읍시 대표단이 지난 20일 독일 뮐하우젠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독일 농업민전쟁 500주년 기념 행사와 맞물려 두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혁명도시 간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뮐하우젠은 1524년 독일농민전쟁의 중심지로, 종교개혁가이자 혁명가였던 토마스 뮐처가 농민들과 함께 봉건제후에 맞서 농민봉기를 일으킨 역사의 현장이다. 이 전쟁은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며 30만 명의 농민이 봉기했으나, 빈약한 무장과 지배층의 강경 진압으로 10만 명 이상이 희생되며 막을 내렸다. 가혹한 세금과 토지 수탈로 인해 발생한 농민들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과 독일농민전쟁은 370여 년의 시차를 두고도 유사한 배경과 전개 과정을 가진다. 시는 2021년 제1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를 시작으로 뮐하우젠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 2023년에는 뮐하우젠시와 공식적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과 박일 시의장은 21일

오후(현지 시간) 독일 현지에서 요하네스 브루스 뮐하우젠 시장, 안 리만 부시장 알렉산더 베티고 뮐하우젠 시의회 의장과 공식회의를 가졌다. 요하네스 시장은 시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며 두 도시가 공유하는 역사적 경험과 혁명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정읍과 뮐하우젠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투쟁과 헌신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며 "우리는 선조들의 희생과 도전을 오늘에 이어가는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학수 시장은 "뮐하우젠의 독일농민전쟁 500주년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원한다. 우리의 역사적 투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기후 위기와 양극화라는 사회 문제, 네오파시즘의 등장이라는 정치적 도전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며 "두 도시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식 회의에서는 두 도시의 역사와 기념사업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정읍시가 5월에 개최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에 요하네스 시장을 비롯한 뮐하우젠 시민대표단의

방문을 제안하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시 대표단은 뮐하우젠 시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 뮐하우젠 역사관, 바호 기념관 뮐하우젠 박물관 등 역사유적을 보며 독일농민전쟁 5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번 방문을 통해 시는 뮐하우젠시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두 도시의 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연계하고 시민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시는 오는 5월 10일 동학농민혁명기념제와 함께 제4회 세계혁명도시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연대회의에는 뮐하우젠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코크, 브라질 칸우두스, 일본 시마네다 농민봉기 관련 전문가와 도시 관계자들이 초청될 계획이다. 시는 이 회의를 통해 '혁명 도시 정읍'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의 이러한 국제 도시 교류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흔치 않은 사례로 평가받는다. 역사적 유산을 활용한 도시 외교를 통해 정읍시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세계적 혁명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역사와 미래를 잇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 어르신 복지 향상 적극행정

권익현 부안군수, 경로당 현장 행정... 지역 경로당 3개소 방문

부안군은(군수 권익현) 권익현 부안군수가 최근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17일 변산면과 하서면을 방문해 각 지역 경로당 3개소를 직접 찾아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불편 사항을 점검했으며 20일에는 진서면 경로당 3개소를 방문해 현장 행정을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경로당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의 불편 사항을 파악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권익현 군수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강화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냉 · 난방 시설 점검 및 긴급보수 필요 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복지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경로당을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경로당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공간인데 군수가 직접 방문해 의견을 들어줘서 감사하다"며 "경로당이 더 편리하게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생활 중심 공간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 생활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우수시 선정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2024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돼 기관포장과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기업 환경 개선과 지원을 위한 16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시는 공무사업 선정, 기업 애로 해소 인 · 허가 신속 처리, 규제 개선 실적 ·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시는 매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1기금 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지원 시책

발굴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산업 · 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를 구성해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정책 발굴에 힘을 기울인다. 또한,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와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확대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9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우수기관 선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라적인 투자 유치 기반 조성과 현장 행정 강화를 통해 친기업 환경을 선도하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옛 우체국 6월까지 철거... 도시광장 조성

정읍시가 옛 정읍우체국 철거공사를 본격 착공하며 해당 부지를 도시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1970년에 준공된 옛 우체국은 건물의 노후화와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로 2022년 연지동 신청사로 이전했다. 이후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철거를 결정했다. 시는 해당 부지를 다목적 도시광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철거공사는 해체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검토, 관련 인 · 허가 심의를 거쳐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된다. 특히, 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해 철거 과정 전반을 총괄 감독하며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이후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공간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도시확장 단절 생태축 복원사업 준공

멸종위기 대모잠자리 등 서식지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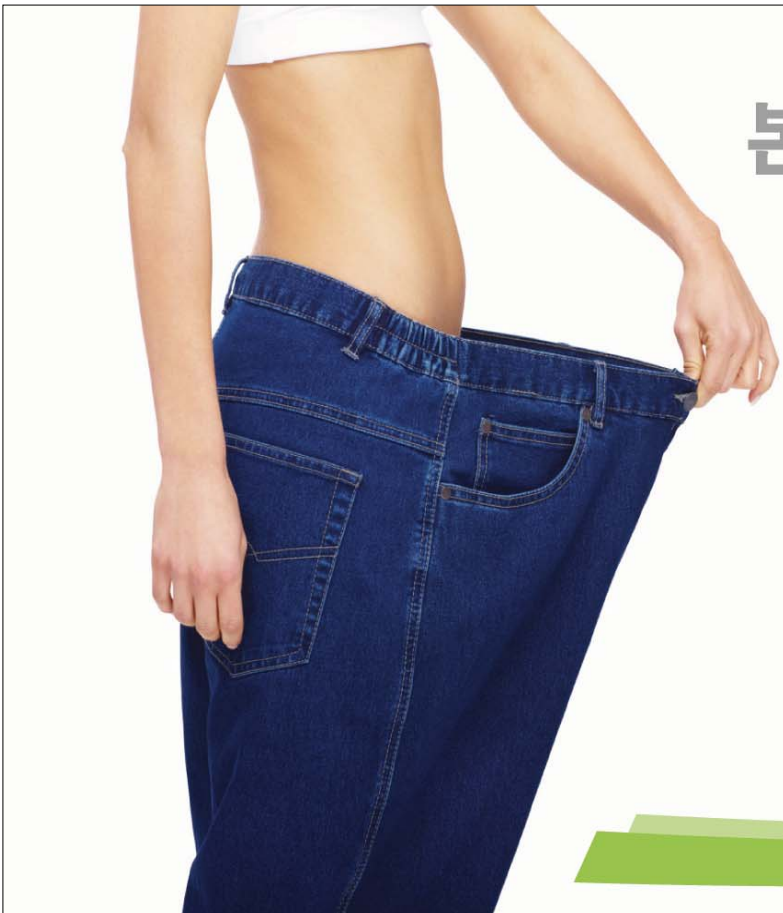
고창군이 도시확장으로 단절됐던 생태축을 복원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보존에 나섰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읍 덕산제 일원에 '고창읍 도시 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 및 군의원, (사)한국생태복원협의회, 생태환경보전협의회, 기후환경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유관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200여명 참석했다. 강호항공고 교사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로 행사의 문을 열었고, 민간유공자 표창, 테이프커팅, 생태축

걷기 등으로 진행됐다. '도시 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은 도시확장에 따른 도로개설로 단절된 덕산제 일원과 고창읍성, 자연마당, 노동저수지 일원의 생태축을 연결해 멸종위기에 있는 다양한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덕산제 일원은 멸종위기 2급인 대모잠자리가 다수 발견된 곳으로, 이외에도 노랑패까치, 출장지뽕, 가시연꽃 등의 서식지가 마련, 다양한 동식물의 적합한 생태환경이 만들어졌다. 또한 덕산택지개발지구가 정비되면 덕산제 일원과 덕산지구는 다양한 동식물과 고창군민의 자연과 생활 환경 등 훨씬 개선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도시 생태축 복원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태축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석 기자



고창군이 도시확장으로 단절됐던 생태축을 복원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보존에 나섰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